

단백체학 학술대회 10월 6-10일 COEX 개최

세계 생명공학 연구의 완결판으로 평가받는 인간프로테옴기구(HUPO: Human Proteome Organizaton)의 제6차 세계 학술대회가 10월 6-10일 COEX에서 개최된다.

HUPO는 세계 과학자들이 인간 단백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2003년 인간 유전암호를 해독한 게놈 프로젝트 이후 암 등 난치·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지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규명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세계 HUPO·아시아오세아니아 HUPO·한국 HUPO가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단백질학 기술의 발전을 통한 바이오마커 응용 분야의 확대를 주제로 단백질 연구·기획·행정에 관련된 52개국 1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8-10일 HUPO 전시회에는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랩프론티어, 바이오버드등 국내 바이오기업이 참석하고, 프로메가, 써머피셔, 밀리포어 등 해외 유수의 바이오기기, 시약, Chip 전문기업들도 참석해 국내기업과 다양한 교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학술대회에는 3명의 노벨상 수상자 이스라엘의 아론 치카노베르 박사, 스위스의 쿠르트 뷔트리히 박사, 일본의 고이치 다나카씨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단백질학 연구자, 관련 행정기관 펀드매니저 Nature, Science, Cell 등 주요 생명과학학술지의 관계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전문가들은 세계 저명 연구자의 연구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보 교류를 통한 한국의 단백질학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단백질학 수준은 세계 5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10/05>